

# 정부 새만금환경보고서 은폐

## 새만금국민회의, 자료 입수 공개...소송에 영향 줄 듯

새만금의 중요성과 물막이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우려한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2004.6)'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압력에 의해 은폐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새만금 소송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이하 새만금국민회의) 소속 환경단체들은 2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이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를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새만금 갯벌이 우리나라 주요 갯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생태 특성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 방조제로 인해 저서생물과 조류 서식지가 감소되고 염수 및 담수의 유출입 패턴이 변화돼, 갯벌에 의존하는 60~70%의 외해 어종의 생산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 공사가 완료될 경우 저서생물의 대량폐사와, 이들을 먹이원으로 하는 도요·물떼새의 지속적인 도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환경부 차원에서 방조제 내측수역의 생태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월17일 열린 동국대 서울캠퍼스 졸업식에서 불교대 졸업생들이 정각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 종립대 “졸업 축하합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를 시작으로 불교 각 종립대학교가 졸업식을 잇달아 개최했다.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2월 17일 본관 중앙당에서 200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77명, 석사 565명, 학사 2462명 등 총 3104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일 문무관에서 졸업식을 진행했으며, 중앙승가대학교는 22일 오후 2시 본관 4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은 24일 오후 2시 대학 내 설법전에서 제23회 졸업식을 거행한다. 이날 불교학과 법학과 불교미술학과 승가학과 등 4개 학과에서 총 83명이 졸업의 영예를 안는다.

진각종립 위덕대학교는 23일 오후 2시 지혜관 앞 광장에서 학위수여식을 봉행한다. 남동우 기자



2월17일 열린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에 참석한 세영 스님을 비롯 종교인들이 행사를 마친 뒤 서울 중로 인근을 돌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사진=고영배 기자

한편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계 인사들은 종교환경회의 주체로 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를 열었다.

400여 종교인들은 “3월 24일 최종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사회·종교·환경단체, 어민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화해와 상생을 위한 대화는 공사 강행만을 주장하는 정부와 전북도에 의해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며 “개방이라는 명목하에 생명의 경의감을 상실해 가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화해와 상생의 자세로 새만금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 NGO 배움터 생긴다

### 현대시설 갖춘 민해교육센터 25일 개관

불교NGO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배움터가 생긴다.

참여불교재단(상임대표 박광서)은 시민사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중구 장충동 소재 우리함께회관에 130평 규모의 민해NGO교육센터를 2월 25일 오후 2시 개관한다.

민해NGO교육센터는 1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멀티형 대교육장과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도형 소교육장, 자연친화형 휴게시설 등을 갖췄다. 또 최신행 캠프로젝트, 실물화상기, 핀보드, 슬라이딩 그린보드, PDP 노트북, 실시간 DVD 녹화시스템이 가능한 카페라 등 첨단 기자재도 마련됐다.

참여불교재단은 민해NGO교육센터와 현재 추진 중인 인재양성 교육시스템을 결합해 불교전문인력 양성에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광서 상임대표는 “배움터 개관을 계기로 불교NGO의 질적 성장과 사회적 화합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불교계 노인복지시설 속초에 2동 건립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신흥사복지원은 강원도 속초 노화동에 ‘반야실비노인요양원’과 ‘반야실비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3월 운영에 앞서 입소자를 모집한다.

이은비 기자

## 북관대첩비 3월1일 北 간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반출된 뒤 100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3월 1일 북측에 전달된다.

북관대첩비 환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일불교복지협회장 조산스님과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원웅 의원 등은 2월 13일 개성에서 북한측 김석환 북관대첩비회찾기대책위원장 등과 만나 현재 경복궁에 야외 전시하고 있는 북관대첩비를 3·1절에 맞추어 북측에 인도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관대첩비를 원위치에 복원한 다음, 그 결과를 남측에 통보하기로 하는 등 5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박봉영 기자

## 전문분야 강좌 ‘눈에 띄네’

### 전국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3월초 개강

전국 약 200여 개에 이르는 불교대학이 일제히 신입생 불자들을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초심자를 위한 입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한편 신도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주야간으로 실시한다. 특히 불교대학 학사과정 중 강좌실습수행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5일 개강하는 부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도 강좌실습 특강의 강의를 하고, 경전반에서는 <금강경> <육조단경> <서장> <법화경> 등을 심층 강독한다. 부산 여여선원 불교신학원은 불자신행생활, 의식생활, 참회기도방법, 사불사경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2월 22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토회 정토불교대학은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정진, 수련과 특강, 봉사활동 등의 특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포함된 교과 과정을 진행한다.

불교와 인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도 함께 갖춘 수 있는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한 곳도 여럿 있다. 동방불교대학은 불교학과와 승가학과를 비롯해 법학과, 불교미술학과를 2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육천법음대는 상주권공과, 가배과, 영산과, 바라춤과 불교의식각론 등의 강좌를 개설했다. 총 3년 과정이지만 바라춤과 의식은 1년 과정으로 배울 수 있다.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기초교리, 불교사, 어린이 법화운영 프로그램의 실제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담 레크리에이션, 구원통과, 종이접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전문지도자과정을 새로 운영한다.

대구 경북불교대학은 서예, 다도, 일본어 회화, 수지침 등의 취미교실을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산 동국불교전법대학은 전법사 과정을 운영하고 4년 동인의 정규과정에는 불교영어와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강좌가 포함돼 있다.

<전국불교대 입학안내는 봇다뉴스에> 이은비 기자

## 황우석 사건 진행상황 청취 22일 범불교 국민연대

‘황우석법 연구 후원을 위한 범불교 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 법다·철인)’는 2월 2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황우석 박사법 연구원으로부터 황우석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황우석 범불교 국민연대 24교구본사 공동대표단 회의 및 사건 진행 상황 보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다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에게 이 사안의 실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포교사단, 4개원 코스로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훈)은 3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간호하는 케어복지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매주 화,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사회복지개론과 노인복지론, 케어개론, 미술치료, 동작치료, 원예치료 등의 과목이 개설되며,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해도 스님과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김영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포교사들이 소정의 자격도 취득하고 포교현장의 전문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과정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02)737-7588 유철주 기자

##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개명 유보

### 충남대, 법명 빼려다 네티즌·동문·학생 반발

기증자의 법명을 따 명명된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을 ‘국제문화회관’으로 개명하려던 충남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충남대(총장 양현수)는 2월 14일 “최근 학내외의 부정적인 의견을 경계하여 수용해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의 명칭 변경을 유보하고 충남대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재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남대는 2월 16일 열리는 학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의견 재수렴 절차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진혁 충남대 정책홍보실장은 “故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재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최근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3월부터, 기부자 이복순 여사의 법명인 ‘정심화’를 떼어내고 ‘국제문화회관’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다가 네티즌, 동문, 학생 등으로부터 “숭고한 기부정신을 저버렸다”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박봉영 기자

## 지리산 햇빛발전소 건립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친환경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남원 실상사 인근 산내지역에 햇빛과 열을 이용한 햇빛발전소가 건립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생명과피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안 없이 써왔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리산생명문화연구원 의 지붕에 ‘지리산 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2월 25일과 3월 4일 각각 실상사와 서울 인드라망교육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2)576-1886 박봉영 기자

# 國內最古 統一新羅 木造佛像 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 기도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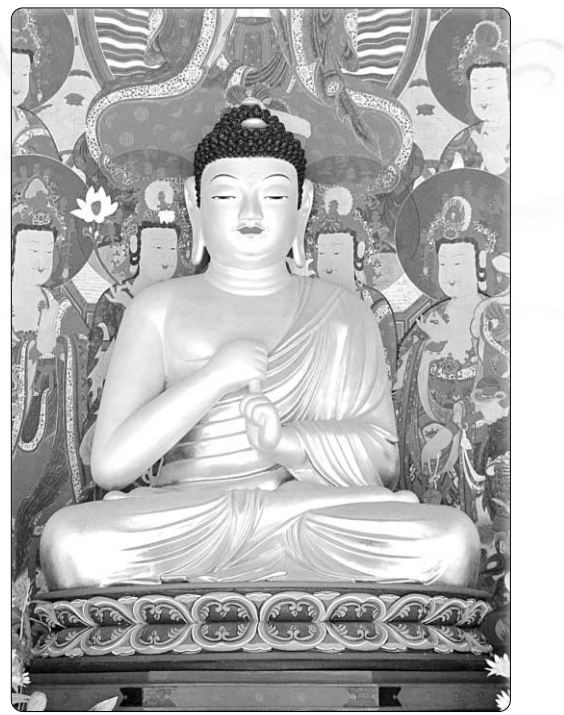
천 년의 비밀을 풀어놓고 우리 곁에 오신 두 분 비로자나부처님이 다시 천 년 후의 만남을 기다리며 온 몸 가득 불자들의 희원을 담아 금빛 광명으로 새롭게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야산 빛으로 법신을 나타내고 해인삼매로 법계를 거두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봉안하고 향수해의 눈을 드리는 법연을 마련하여 광명기도를 바칩니다. 마음과 부처와 동생이 하나 되는 자리, 그 곳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취 없는 자리입니다. 광명기도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리를 찾아 떠나는 마음 길의 등불입니다.

모든 때림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포용의 한 마당을 여는 광명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빛나는 몸과 마음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개금진 부처님



개금술 마친 비로자나 부처님

- 입 재 식: 불기 2550(2006). 2. 17. 金. (음력 1. 20) 오후 1시
- 법회기간: 불기 2550(2006). 2. 17. 金. (음력 1. 20) ~ 9. 21. 木. (음력 윤 7. 29) 21일간
- 장 소: 해인사 보경당 ☎ 055)934-3022
- 기도시간: 평일 1일 4회 기도 (새벽 3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금·토·일 철야기도 (밤 9시 ~ 새벽 3시)
- 기도내용: 천수경, 보현행원품 독송, 광명진언 108번, 축원
- 동 참 금: 회향일까지 21일 기도 300,000원 / 1일 기도 10,000원
- 기도문의 및 접수: 종합접수실 ☎ 055)934-3105~6 / 팩스 055)934-3107 이메일 접수 light217@hanmail.net
- ※ 팩스 및 이메일 접수를 환영합니다. (기재사항: 주소, 전화, 가족사항, 발원내용)
- 광명기도 신청 계좌: 농협 843174-51-013950 (예금주: 해인사)

## 法寶宗刹 海印寺 주지 현응 합장